

ISU

2020 SUMMER VOL. 101

INSIDE

이수인의 이중생활

취미를 통해 되찾는 행복한 일상

팀업뽀뽀

이수엑사캠 영업2팀

OUTSIDE

이수 테이블

'후루룩' 시원한 누들로드

스페셜 리포트

뉴노멀 시대의 언택트 마케팅



04

INSIDE

- 05 Focus & News
- 10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
<자제력 수업>
- 12 이슈를 잡아라
갤러리 Space ISU 개관
- 14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 18 이수인의 이중생활
취미를 통해 되찾는 행복한 일상
- 24 팀업뽀뽀
이수엑사캠 영업2팀
- 30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윤보경 대리(이수페타시스 해외영업팀)
강자영 대리(이수건설 품질관리팀)
김희정 사원(이수페타시스 기술연구소 설계기술팀)

33

OUTSIDE

- 34 이수 테이블
더위를 잊는 여름의 맛
'후루룩' 시원한 누들로드
- 38 스페셜 리포트
뉴노멀 시대의 언택트 마케팅
- 44 마이레알트립
산과 바다, 계곡이 한 곳에
여름여름한 COOL 여행지
- 51 이수의 PICK
2030 세대의 새로운 문화
밀레니얼은 등산도 힙하게 즐겨요!
- 57 Ombudsman
- 58 퀴즈 및 엽서

㈜이수

Space ISU 개관



지난 5월 28일 이수그룹 반포사옥 1층에서 김상범 회장 및 각 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갤러리 'Space ISU(스페이스 이수)'의 개관식이 열렸다. 스페이스 이수는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임스 터렐, 메리 코스, 안젤라 블로흐, 서도호 등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한 동시대 작가 6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전시는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수화학

주요 산업계 간담회 참석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수화학 류승호 대표이사는 지난 5월 21일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화학 대표 업체 중 한 곳으로 참석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충격 대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등 9개 업종 17개 회사가 함께했다.

이수화학

온산공장,
공정안전관리(PSM)
최고 등급 달성



이수화학 온산공장은 지난 5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행상태 정기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달성했다. 2020년 4월 기준 PSM 평가 P등급은 2,258개 사업장 중 81개 사업장에만 부여된 최고 수준의 공정안전관리 등급이다. 이수화학은 세계적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수페타시스

창립 31주년
기념행사 진행



※ 해당 콘텐츠의 촬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 하에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되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6월 15일 창립 3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4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장기근속자, 모범상, 우수기능상, 특별상 등의 포상이 이뤄졌다. 서영준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고,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건설

인천 서구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주



이수건설은 지난 5월 23일 인천 서구 석남동 494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로 이수건설은 석남역 일대 1,133세대를 아우르는 브라운스톤 대단지를 완공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지하 5층 ~ 지상 32층과 36층 공동주택 2개동 348세대, 오피스텔 1개동 140실로 연면적 26,024여 평 규모의 48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시스템

'일과사람연구소
안녕(쥬)과 MOU 체결



이수시스템은 지난 5월 14일 조직 및 직원 진단 솔루션 개발 업체 '일과사람연구소 안녕(쥬)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수시스템의 HR 솔루션에 추가로 탑재될 사내 조직 성과 및 직원 몰입도 측정 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해당 솔루션은 완성 후 이수시스템이 보유한 모바일 및 웹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수창업투자

여름 개봉작 및
뮤지컬 공연 소개



이수창업투자가 침체에 빠져있는 극장가와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작품들을 소개한다. 전작의 흥행으로 기대가 높은 <강철비2:정상회담>은 더 다양한 장르적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솔직, 담대한 가족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편향>은 레즈비언 작가 앨리스 벡델의 회고록 '편향'을 무대에 올린 작품으로 7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연 예정이다.

이수앱지스

'Offline AACR at
ISU ABXIS' 행사 개최



이수앱지스는 지난 6월 23일 AACR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를 임직원에게 공유하는 'Offline AACR at ISU ABXIS' 행사를 개최했다.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은 암 연구 전문가 및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저명한 학회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수앱지스는 첫 날 진행된 AACR 포스터 세션에서 ISU104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수엑사캠

다일복지재단에
마스크 6,000장 기부



지난 5월 8일 이수엑사캠 차기식 상무, 손정규 과장, 고영빈 사원이 회사를 대표해 다일복지재단 발파나눔 운동본부에 마스크 6,000장을 기부했다. 다일복지재단은 1,400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재단이며, 발파나눔 운동본부에서는 엑사캠의 마스크 기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수엑사캠은 향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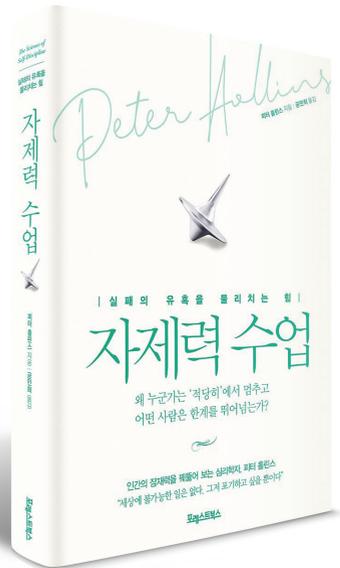
온 가족을 위한
애니메이션!



지난 봄 핸드메이드 시간여행 로맨스 <카페 벨에포크>가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데 이어, 이수C&E는 여름을 맞아 애니메이션 <애니멀 크래커>를 개봉한다. 과자를 먹으면 동물로 변하게 되는 '마법의 크래커'라는 독특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로 국내에서 큰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국 록밴드 '퀸'의 노래가 삽입되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로 기대를 모은다.

실패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 자제력 수업

저 자 피터 홀린스
출판사 포레스트북스



“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능력의 차이는 자제력에서 비롯된다. 자제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마음의 근육과 같아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이 책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자제력을 기르고 더 나은 삶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를 제안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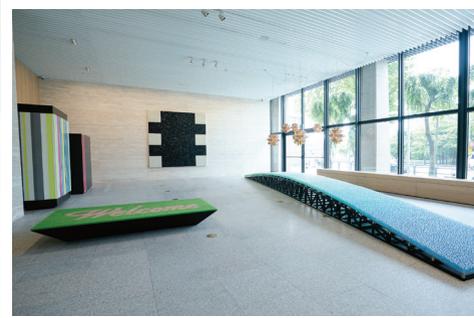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누군가는 적당한 지점에서 멈추지만 어떤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다고 느끼면 조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합리화하며 목표 달성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절제를 밑바탕에 둔 강한 의지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자 피터 홀린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한다. 어렸을 때 유난히 마르고 왜소한 체구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피터 홀린스는 대학에 진학한 뒤 몸집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서 '자제력'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저자는 심리학을 전공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대한 사례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들 모두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제력을 갖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어려운 결심이나 목표를 앞에 두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물학적, 심리학적 연구 사례를 인용하며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관찰하는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훗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거나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자제력을 단련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하여 눈앞의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다 보면 자제력의 힘이 반드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 본 코너 추천도서는 향후 이수그룹 리딩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을 통한 새로운 가치 경험의 공간 갤러리 Space ISU 개관

갤러리 '스페이스 이수'가 지난 5월 이수그룹 본사 사옥 1층에 문을 열었다. 일상 속의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스페이스 이수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추구해온 이수그룹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전시공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수 그룹 사옥 1층에서 갤러리 'Space ISU(스페이스 이

수)'의 개관식이 열렸다. 김상범 회장을 비롯해 그룹 사의 대표이사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개관식은 '작품이 선사하는 감동', '예술의 의미', '감상의 가치'에 대해 되새겨 보는 장을 마련했다. 스페이스 이수는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공간으로 향후 많은 작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아 전시 공간은 감상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시공간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작품이 주는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했다.

전시공간을 디자인한 서승모 건축가는 기존 이수 그룹 사옥 1층의 공간 전체를 리노베이션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재창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철제 프레임과 유리로 분리되어 있던 세 곳의 공간을 열었고 벽면과 바닥 재료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새로 만든 벽면에 따스한 질감의 목재를 추가하고 천장에는 철재 빔들을 넣어 공간 전체의 느낌을 바꾸어 놓았다.

빛과 반영, 반성 그리고 반항을 담은 작품들

개관 기념으로 마련된 <레조넌스>는 전시의 기본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감상을 위해 좋은 작품을 선별해, 작품이 주는 감동과 예술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감상의 가치에 대해 되새기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빛과 반영, 반성, 반항을 모티브 삼아 준비된 전시로 동시대 작가 6인의 작품을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상의 장인 것이다.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빛을 조형화하는 제

임스 터렐, 메리 코스, 안젤라 블로흐의 작품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예술과 일상, 미술과 디자인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본질적 질문을 하는 토비아스 레베르거, 호르헤 파르도, 서도호의 작품이 그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달라지고 전시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예술작품을 직접 감상하는 경험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경험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삶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했다. 지난 50여 년의 세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을 추구해온 이수그룹은 스페이스 이수의 개관을 시작으로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연듯빛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의 향기가 계절을 장식하고 있네요.
직장 혹은 사회나 가정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동료와 후배가 해결해주는 알쏭달쏭한 고민들.
톡·톡·톡 사이다 상담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수 가족을 위한 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답니다!

※ 이번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진 촬영 없이 진행됐으며, 인터뷰 내용을 메신저 대화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Q

워킹맘이다보니 짬을 내서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엄마도 아이도 즐거운 놀이는 없을까요?

정유진 과장
(㈜이수 재무기획팀)



정유진 과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때문에 짬을 내서 아이랑 놀아주기가 쉽지 않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김지영 과장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할 때면 위생과 안전 때문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욱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정유진 과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엄마와 아이 모두 즐거운 놀이 방법, 어디 없을까요? 과장님만 아시는 꿀팁이나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김지영 과장

저 같은 경우는 주말 아침 해가 쨍쨍하게 뜬 걸 보면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야외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키즈카페처럼 밀폐된 공간은 되도록 피하고, 주로 탁 트인 곳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가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용 손 소독제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르도록 하죠.



정유진 과장

밖에선 아이들과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김지영 과장

아이들이 자전거를 좋아해요. 8살 큰아이는 두발자전거, 5살 둘째는 네발자전거에 재미를 붙인 터라 주말마다 자전거 타기가 필수예요. 가끔은 짬을 지어 2인용 자전거를 빌려 타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주로 아침 활동을 합니다. 야외활동을 하되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



정유진 과장

저도 이번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바깥 나들이를 해봐야겠네요.

김지영 과장

위생 수칙 준수와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면 아이가 원하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킹맘 파이팅입니다!!

A

김지영 과장
(이수화학 시스템경영팀)

Q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요즘, 대리님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김현중 대리
(쥬이수 브랜드전략팀)



김현중 대리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생활은 물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문하나 대리



저도 여러 가지 변화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직장과 라이프 스타일 모든 측면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김현중 대리

직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나요?

문하나 대리



우선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언택트(Untact)가 직장생활에도 접목되면서, 재택근무를 경험하게 되었고 온라인 협업의 비중도 높아졌어요.



김현중 대리

저는 퇴근 후나 휴일의 일상의 풍경도 제법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하나 대리



네 맞아요. 저 역시 모임은 가능한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을 피하는 등 '집콕'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TV,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네요.



김현중 대리

대리님도 저도 모두들 비슷하네요. 얼른 이 상황이 끝나면 좋겠어요~

문하나 대리



그러게요. 하루빨리 마음 편히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유로이 어디든 다닐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A

문하나 대리
(이수시스템 신성장사업본부 R&D팀)

Q

요즘 부쩍 퇴근 후 시간을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하면 좋을 취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서진우 대리
(이수페타시스 연구팀 도금파트)



서진우 대리

극장을 가거나 외식도 자유롭게 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 부쩍 퇴근 후 시간을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내고 싶어요. 뭔 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좋은 취미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은주 과장



퇴근 후 취미생활을 가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혼자 할 취미를 찾고 계신가요?



서진우 대리

이왕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면 온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과장



온 가족이 함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잘 맞을 거 같아요.



서진우 대리

평일 퇴근 후 저녁에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중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은주 과장



그렇다면 저는 주저 없이 '산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다 혹시 키우는 반려견이 있다면 함께 산책하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이 될 테니까요.



서진우 대리

혹시 추천 장소가 있으시다면요?

이은주 과장



집 근처 가까운 공원이 좋겠지만,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고, 영화음악과 클래식에 맞춰 시간대별로 춤추는 분수쇼와 청도 프로방스처럼 빛축제도 하고 있어요.



서진우 대리

와~ 이런 좋은 정보가 있었네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에 나서야겠어요.

이은주 과장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월광수변공원 주위에는 예쁜 카페도 많답니다. 산책 후 가족과 함께 먹는 시원하고 달콤한 팔빙수의 맛이 두 배의 행복이 될 것 같네요.

A

이은주 과장
(이수페타시스 구매팀)

취미를 통해 되찾는 행복한 일상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생활은 물론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던 평범한 순간이 사뭇 소중한 시기가 아닐까? 그러나 늘 그랬듯이 이수인들은 슬기롭게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수인의 슬기로운 집콕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슬기로운 집콕생활에 관한 랜선 인터뷰를 들어보자.

대담 진행 _ 구혜현 대리((주)이수 브랜드전략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원대 기선안녕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생산2파트 적층2에서 20년째 근무 중인 김원대 기선입니다.

장석환 차장저는 이수페타시스 재경팀에서 재무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장석환 차장입니다. 2008년에 입사해 13년째 근무중입니다.

신유진 사원안녕하세요. 입사 1년 8개월 차 신유진 사원입니다. 이수시스템 스마트사업팀에서 웹 개발자로 공장 업무 포탈 시스템을 유지보수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사원이수건설 주택영업2팀 박성훈 사원입니다. 입사 1년째 되었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취미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원대 기선가족공예를 배우고 싶어 공방에 찾아가 가족 팔찌와 키링을 하나씩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 계속 만들다보니, 어느새 제가 만든 팔찌를 지인들에게 선물까지 하게 되었네요.

장석환 차장교회에서 형들이 멋지게 기타 연주하

는 것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실용음악학원이나 온라인 클래스가 많지 않을 때라 교회 같은 곳을 통해 악기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이후로 제대로 레슨을 받지 않았더니 기타 연주에 들인 시간에 비해 아직 실력은 많이 부족합니다.(웃음)

신유진 사원저는 작년에 잦은 잔병치레를 하면서 건강이 부쩍 안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해보자 싶어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9개월이나 되었네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도시락을 챙기다 보니, '도시락 꾸미기' 재미에 푹 빠져서 더 열심히 요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박성훈 사원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작년 까지 축구, 배드민턴, 헬스를 하다가 골프를 배워보고 싶어 시작한 게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마침 이사한 아파트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도 연습이 가능했습니다.

그간 실력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김원대 기선다양한 종류의 가족으로 만든 팔찌와 키링을 찾아보던 중 유튜브에서 매듭에 대한 콘텐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라코드(낙하산

줄)로 매듭 짓는 걸 독학했고, 서점에서 전문 매듭 공예 서적을 구입해서 연구하고, 매듭공예를 위해 대전까지 찾아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재료를 구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 시장도 다녀왔어요.

장석환 차장 학생 때는 <이정선 기타교실> 시리즈 같은 책을 보며 독학으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악보나 다른 사람들의 연주 영상을 구하는 게 쉬워졌죠. 저 같은 비전공자가 볼만한 이론 서적들도 풍부해지고, 그래도 해결 되지 않는 부분은 구글과 유튜브가 채워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악보나 연주 팁들을 얻었어요.

신유진 사원 건강식으로 유명한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유튜버를 팔로우 하면서 식단 정보를 수집하

고 먹어보고 싶은 요리가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레시피를 찾아 따라하곤 했어요. 칼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터라 간단하게 재료만 준비하면 되는 요리부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조금씩 솜씨가 늘어가는 게 느껴져 뿌듯하네요.(웃음)

박성훈 사원 운동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연습하면서 배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하다가 잘 모르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변 지인이나 레슨 선생님께 물어서 보완해 나가니 실력이 개선 될 때마다 뿌듯해 하곤 합니다.

요즘처럼 외부 활동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김원대 기선 다행히 가족공예는 실내에서 혼자 배워도 좋은 취미입니다. 요즘 난이도가 높은 매듭 중에 가우초넛, 파인애플넛, 보테가베네타 스타일의 열쇠고리와 팔찌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석환 차장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저녁시간에 무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교회 밴드에 소속되어 있어서 나중에 연주할 곡들을 카피하며 연습하지만, 코로나19로 그마저 없어졌어요. 근무시간이 끝나면 조용히 제 물건이 쌓여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태블릿PC에 들어있는 악보들이나, 예전에 사두었던 교재, 악보집들을 펼쳐놓고 몇 소절씩 쳐봅니다. 웬만큼 된다 싶으면 컴퓨터로 녹음을 해보기도 합니다.

신유진 사원 최근에는 오트밀과 콜리플라워를 활용한 요리를 자주 하고 있어요. 두 식품 모두 식이 섬유가 풍부해 뜨고 있는 슈퍼푸드인데 흰쌀밥을

대체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나이트 오트밀과 콜리플라워 볶음밥을 자주 해먹고 있어요.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아침식사 대용으로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맛있어서 추천합니다!

박성훈 사원 다행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개인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방문일지를 작성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김원대 기선 한번은 고난이도 매듭에 도전 중이었는데 과정이 너무 어려워 잠시 포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해서 결국 성공했고, 지금은 어려운 매듭도 잘 해내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죠. 지인과 가족들에게 제가 만든 가족공예품을 선물하다보면 간혹 판매를 문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황스럽지만 인정받는 느낌이라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장석환 차장 군복무 중에 노래자랑에 나가 휴가와 외박을 떠낸 적이 있어요. 사실 제 기타 연주가 좋아서라기보다 같이 복무하던 선임이 노래를 정말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운동도 못하고, 사격도 못하는 제가 포상휴가, 포상외박을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죠. 몇 년 전에는 크리스마스 주간에 울산 성남동에 있는 공개 무대를 빌려 공연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친구 덕분에 함께하게 된 공연인데 그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추운 날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라 손이 꽁꽁 얼어 연주



기타 연주는 언제나 원할 때 잠시 쉴 수 있는 나만의 힐링 공간이다
장석환 차장

가 엉망이 되었는데도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신유진 사원 제가 정말 빵을 좋아하는 일명 '빵순이'인데요. 한번은 만두피로 파이를 만들면 칼로리가 낮아 건강에 좋은 애플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만두를 빚듯 파이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요즘은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만두를 빚을 일이 없어서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파이도 정말 맛있어서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가족공예는 안정감과 인내심, 성취감을 선사하는 특별한 친구다 김원대 기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요리는 내 삶의 주치의이다**

신유진 사원



**취미생활이 가져온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
까요?**

김원대 기선 주위에 가족공예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게 제법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이 된 셈이죠. 그렇게 불러주시고요. 특히 배운 걸 나눌 수 있고, 하나의 공예품이 완성될 때의 성취감을 함께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장석환 차장 휴대폰이 완전히 방전되면 충전기에 연결해도 켜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요. 하지

만 조금씩 자주 충전해 두면 중간에 꺼지는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죠. 틈틈이 기타를 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신적인 충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거죠.

신유진 사원 요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요. 아침, 점심 도시락을 모두 준비하려면 매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요. 바쁜 출근 시간을 쪼개서 준비하다 보니, 보통 자기 전에 재료 손질을 미리 해 두죠. 그럼 일어나서 조리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스스로 부지런해지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침에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 이불에서 못 나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놀라워 하죠(웃음).

박성훈 사원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도 다른 운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던 터라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운동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체력을 유지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지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정체기나 슬럼프가 오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원대 기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인내심을 길러주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도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석환 차장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기타

줄을 바꾸고, 기타를 손질합니다.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집중하면 잡생각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기타 손질을 끝내고 늦은 밤이 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신유진 사원 건강하고 좋은 취미가 생긴 덕분에 전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훈 사원 저는 영업 직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편입니다.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업무 외에 이야기할 소재가 생겨 상대방과 더 빨리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골프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어울려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실력 정도만 갖추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 각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원대 기선 국내에 매듭 장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찾아가 조금 더 고난이도의 매듭을 배워서 제 분야인 가족공예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판매를 목표로 제 가족공예품의 제품화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석환 차장 10년 넘게 향상되지 않는 실력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레슨을 받아보고 싶어요.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을 찾아 원격 레슨을 받았으면 합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내한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신유진 사원 건강을 위해 시작한 만큼 이제는 식단 뿐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구 필라테스도 시작했고 지난 주말에도 서울 돌레길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식단 요리도, 운동도 꾸준히 할 생각이예요. 강철 체력이 되는 그날까지 말이죠(웃음).

박성훈 사원 현재 골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연습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습을 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운동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골프와 운동은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느끼게 해주는 동반자다

박성훈 사원



이수엑사캠 영업2팀 도전과 열정의 영 파워로 코로나 팬데믹을 돌파하다

전 세계의 비즈니스 업계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유의 위기상황을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팀워크로 돌파한 사람들이 있다. 정보력과 발 빠른 대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해의 목표를 차곡차곡 달성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수엑사캠을 글로벌 케미컬 트레이더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수엑사캠 영업2팀을 만났다.



손정규 과장(팀장)

김연식 대리

서태석 사원

장일명 사원

※ 해당 콘텐츠의 촬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 하에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되었습니다.



이수엑사캠 영업2팀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지난해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수엑사캠 영업2팀은 이수화학에서 생산하는 정밀화학 제품과 국내외 업체에서 외부 소싱하는 정밀화학 제품의 해외 업체 판매와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수화학에서 생산하는 정밀화학제품인 D-SOL과 TDM의 해외시장(아시아,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등) 수출이 그것이다. 또한 현재 이수화학의 NOM과 NDM 상업 생산에 맞춰 프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수화학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외부 소싱 상품으로는 현대셀베이스오일의 윤활기유와 현대오일뱅크의 윤활유 완제품 및 D-SOL, 중국 Yitai Ningneng의 Iso Paraffin, NACO의 Poly Alpha Olefin과 Iso Nonanoic Acid, Wondertech사의 Nacan 등이 있으며, 이 제품들을 구매해 해외시장

에 판매하고 있다.

이수엑사캠 영업2팀의 팀원들은 이러한 업무 특성에 맞추어 퇴근 이후 진행되었던 업무를 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도와 급한 정도를 고려해 계획을 세운 뒤 국가별 업무 시간에 맞춰 업체별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아시아는 물론 시간대가 전혀 다른 아프리카, 유럽, 미주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퇴근한 뒤에도 수시로 메일과 메신저 등을 체크해서 중요한 사항의 경우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상반기

이수엑사캠 영업2팀은 올해 다사다난한 상반기를 보냈다. 지난 4월 중국 3개 세관에서 갑자기 당



정보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객 만족은 영업2팀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수엑사캠 영업2팀이 발휘하는 끈끈한 팀워크와 집중력은 놀랄만한 성과를 불러오는 원동력이다



사의 주력제품인 TDM을 위험물로 지정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약 8억 원 상당의 제품이 수입통관이 지체되어, 고객사 공장의 경우 가동 중단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우선 협상을 통해 현지 세관에 묶여 있던 제품을 통과시켜 고객사 공장 가동 중단 위기를 해결했다. 또한 이수화학 유관부서 및 현지 바이어들과의 협업을 통해 TDM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비위험물로 판정 및 유통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 내 공인 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해 발급받은 '비위험물 판정 보고서'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비위험물 판정을 받아냈다. 덕분에 과거 이미 비위험물로 통관된 제품에 대한 과세와 벌금 비용 및 향후 매년 발생하게 될 8천여 만원의 위험물 검사 비용 및 현지 고객사의 위험물 취급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향 TDM 판매의 심각한 걸

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하여 난관을 극복하다

코로나19 사태 역시 큰 난관이었다. TDM의 주력 시장인 중국·대만·유럽 시장의 TDM 수요가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수엑사캠 영업2팀은 코로나19가 막 이슈화되던 시점에 향후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경쟁사보다 선제적으로 판매 협상을 진행, 중국·대만 시장의 약 80% 수준까지 판매계약을 조기 성사시켰다. 또한 팀 내에서 신규개발 중인 유럽·미주 시장의 경우 제품 수요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해 차근차근 거래를 성사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1~5월까지 판매량이 약 4,900MT(목표대비 99%)에 달하며, 영업이익은 약 11억8천만원(목표대비 131%)을 달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윤활유와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D-SOL의 시장도 위축됐다. 그러나 시장 내에서 경쟁사의 생산·공급 불안정, 국제유가 급락 및 원가 하락 등의 기회를 포착했고, 이수엑사캠 영업2팀은 유연한 판매가격, 판매물량 극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1~5월 약 4,600톤(목표대비 230%)의 판매량, 약 2억6천만원(목표대비 약 1,200%)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큰 위기에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윤활기유 판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가별 록다운이 진행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유가 폭락이 이어지면서 판로가 막혀 당사의 윤활기유 공급사(현대 쉘베이스오일) 역시 재고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수엑사캠 영업2팀은 기존 판매 국가별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급사의 가

격과 물량 지원을 끌어내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의 판매망도 개척했다. 그 결과 공급사가 떠안고 있던 과도한 재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수엑사캠 영업2팀 역시 올해 목표(14만톤)의 70%를 상반기에 달성해 내는 성과를 이 끌어 냈다.

또한 기존 판매 아이템 외에, 이수화학의 신규 아이템인 NOM과 NDM의 상업 생산에 맞춘 신속한 판매 안정화와 올해 런칭한 외부 소싱 아이템인 중국의 이소파라핀(Iso Paraffin)과 이소노나노익산(Iso Nonanoic Acid), 러시아의 리튬 하이드록사이드(Lithium Hydroxide), 태국의 윤활기유 등은 점진적 판매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고객 만족과 정보력, 전문성이 최고의 자산

이처럼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수엑사캠 영업2팀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로 고객 만

족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쟁사에 앞서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좋은 매너,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만족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정보력이다. 수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고객과 판매 아이템 시장 등 중요한 정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격을 올려야 할 때 가



격을 내리거나, 반대로 가격을 내려야 할 때 가격을 올린다면 재고관리에 실패하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해외 영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해외 영업은 단순히 외국어 구사 능력만 중요한 분야가 아니다. 국제무역과 물류에 대한 지식과 판매 아이템은 물론 연관 산업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춰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 시킨 사람들

이수엑사캠 영업2팀을 이끄는 손정규 과장은 무엇보다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여 놀랄 만한 성과를 올릴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제조 회사가 아닌 무역상사에서 영업하다 보면, 제조회사와 구매 협상을 하거나 고객을 상대로 판매 협상을 할 때도 약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끝까지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급처와 구매처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이것이 큰 실적으로 연결될 때 맛보는 성취감은 무역상사의 영업사원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그러한 성취감이 정점을 찍는 계기였다. 올해 2분기는 매 순간이 위기였지만, 이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D-SOL 판매에 있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끌어낸 김연식 대리, 상해 대표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TDM 판매량을 유지하고 중국 세관에서 위험물 지정한 것을 다시 비위험물로 바꾼 일등공신 장일명 사원, 그리고 회사 내에서 최초로 TDM의 유럽과 미주 시장 판매를 기록한 서태석 사원은 팀장인 그에게도 자극제가 되고 있으며,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뚫돌 뭉친 드림팀

젊은 팀이라는 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팀장을 비롯해서 팀 전체의 연령대가 낮은 팀인 만큼 지구력과 집중력이 남달랐던 것이다. 젊은 팀 특유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이수엑사캠 영업2팀의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평소에는 여느 팀과

다를 바 없이 일하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김연식 대리가 최우수 영업사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주요 아이템인 ISU D-SOL과 HDO(현대오일뱅크) D-SOL, HSB 윤

활기유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는 일과 TDM의 높은 판매량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3분기에는 NOM·NDM의 판매 안정화와 더불어 연료유 사업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수엑사캠의 중장기 목표인 연매출 '1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Leader's Message

손정규 과장(팀장)



이수엑사캠 영업2팀의 모든 팀원들은 제가 신뢰하는 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팀원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위기 속에서도 트레이딩의 묘미를 발휘하여 최고의 실적을 올려준 팀원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뜻을 되새겨 성실과 끈기로 불확실한 하루 또 하루를 정복해나간다면 우리는 '매출 1조'라는 큰 산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보경 대리(이수페타시스 해외영업팀)



엄마표 반찬에 가득 담긴 사랑

오늘도 '엄마표' 반찬 박스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맛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를 염려하는 마음에 매일 끼니 걱정을 하십니다. 음식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엄마 손맛'은 따라가기 힘들다고 볼멘 투정을 부려서 일까요? 어머니께 부담이 될까 매번 마다하지만 갖가지 반찬들이 선물처럼 문 앞에 도착합니다. 얼음 팩으로 무장된 엄마표 불고기 와 제가 즐겨먹던 반찬들을 보며 아이처럼 신이 나다가도, 박스 구석구석 묻어있는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천천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제가 직접 어머니께 밥상을 차려드리고 꼬옥 안아드릴 겁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반찬 #항상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강자영 대리(이수건설 품질관리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떠난 여름휴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요즘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할 겸 남들보다 조금 빨리 여름휴가를 준비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사랑스러운 딸과 "우리 아내가 최고야"를 외치는 든직한 신랑, 그리고 곧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 될 뱃속의 아기 '강뽕이'까지. 모두 함께하는 이번 휴가는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고요. 조금 이른 여름휴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지금도 휴가지의 푸른 바다를 떠올리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조금 #빠른 #여름휴가 #행복 #가족



김희정 사원(이수페타시스 기술연구소 설계기술팀)



인생 500일차 사랑둥이 내 딸!

막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손도, 발도, 얼굴도 너무 작아 만지기조차 겁이 났던 우리 꼬물이 태어난 지 벌써 500일이 되었어요. 여름으로 접어든 지금, 사랑둥이 딸의 탄생 500일을 기념해 집에서 소박하게 우리 가족만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커다란 풍선 옆에 앉은 하은이가 참 의젓해 보이죠? 1년 4개월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또 잘자며 큰 사고 없이 무럭무럭 자라 준 나의 보물이랍니다. 태명이 '사랑'이었던 만큼 애교도 많고 인사도 참 잘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우리 하은이는 인기 만점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더 바랄게 없겠네요.

#사랑둥이 #귀요미 #내딸 #500일기념 #파티

OUT
SIDE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lhg764 / 이메일 : q.hyun@isu.co.kr



‘후루룩, 시원한 누들로드’

더위를 잊기 여름의 맛

더위를 달래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계절의 별미로는 여전히 면(面)을 첫 손에 꼽아준다. 면요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여름철에는 역시 동치미 국물이나 차가운 육수에 말아 내는 국수와 냉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특히 차가운 면요리가 시작된 이북 땅에서 가까운 서울 북쪽 지방에 가면 고향의 맛에 독특한 레시피를 추가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노포(老鋪)들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류는 대부분 함경도나 평안도, 황해도 등 이북 지방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계절의 별미로 꼽히는 음식이지만 사실 냉면은 이북 사람들이 겨울철에 즐겨 먹던 음식. 그 당시의 서민들은 고기 맛을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겨울철 살얼음이 뜬 동치미 국물이야말로 최고의 냉면 육수였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한 집 건너 한 집씩 냉면이나 국수 가게가 있을 만큼 면요리가 흔한 먹거리가 되어 버렸지만, 냉장고가 없어 얼음이 귀하던 시절이었기에 여름철에 찬 음식을 먹는 일은 임금님이나 가능했으리라.



함병현 김치말이국수

여덟 가지 고명을 얹어 특별한 김치말이국수

한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으로 대접 받았던 베어스타운 마니아들은 김치말이국수라는 흔한 음식을 먹기 위해 이 집에 반드시 들르고는 했다. 그런데 흔하다고 하기에는 첫 인상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국수에 얹은 고명이 이토록 곱고 맛깔나 보일 수 있는 걸까. 빨간 김치 국물과 열무김치, 송송 썰은 오이와 배, 포슬포슬한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노른자를 드러낸 계란까지. 고명만 보아도 이 음식에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독특한 레시피로 국수라는 흔한 요리의 구태를 탈피한 이 먹거리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함병현 김치말이국수'의 대표 메뉴다. 1989년에 포천 본점 문을 열었으니 벌써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육수를 만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사골과 사태고기를 넣어 끓여낸 뒤 김치 국물을 섞어 만든 육수는 그 맛부터가 기존의 김치말이국수들과는 다르다. 또한 김치 국물의 숙명으로 여겨지던 신맛은 고명으로 잘게 부순 두부를 추가해 잡았다. 기왕이면 김치말이국수에 곁들여 먹기 좋은 메뉴도 맛보도록 할까. 녹두전과 만두가 이 집의 또 다른 별미다. 본래 김치말이국수가 이북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었기에 녹두전 역시 돼지고기, 김치, 숙주를 넣고 붉은 고추로 모양을 낸 북한식으로 손님상에 내놓는다. 혀에 남은 국수의 매운맛을 녹두전으로 잡는 것이다.

☎ 김치말이국수 8천 원, 녹두전 9천 원
 ©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175
 ☎ 031-534-0732

옥천냉면, 담백한 이북식 냉면의 진수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에서 6번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면 옥천냉면의 고향,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도착하게 된다. 옥천냉면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1952년부터 이곳에서 냉면과 완자를 팔았던故 김순덕 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도 금천이다. 한국전쟁의 화마를 피해 남편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 온 김 할머니는 금천에 살 때 냉면 장사를 했던지라 옥천에 자리 잡은 뒤에도 '황해식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냉면집을 열었다.

할머니는 고향에서 먹던 그대로 냉면을 만들었다. 때문에 옥천냉면은 이북식 냉면의 계보를 잇는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간장과 설탕으로 간을 맞춘 돼

지고기 육수 그리고 끈기가 없어 쉽게 끊어지는 굵은 메밀면을 넣은 이북식 냉면이 옥천냉면의 시작이었다. 황해식당 주변에 살던 다른 실향민들도 냉면을 만들어 팔면서 동네가 이북식 냉면으로 명성이 높아지자 양평군은 옥천리를 '냉면고을'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황해식당의 메뉴판에는 완자와 편육도 있다. 특히 돼지고기와 채소를 다져 만든 완자는 슴슴한 육수와 잘 어울려 단골 손님은 대부분 냉면과 함께 완자를 주문한다.

☎ 물냉면 8천 원, 완자 2만 원
 ◎ 경기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140 옥천냉면 황해식당
 ☎ 031-772-9693

강계봉진 막국수



옥천냉면 황해식당



천서리 막국수, 남한강 따라 전해오는 새콤한 맛

동네 옆으로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천서리는 경기도 여주 북쪽의 파사산 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지명에서 이름을 따다 지은 '천서리 막국수'는 평안북도 강계가 고향인 실향민 부부가 1975년 메밀면을 뽑아 막국수를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막국수집 대표 메뉴가 그렇듯 천서리 막국수 역시 물 막국수와 비빔 막국수 두 종류를 팔고 있다. 메밀면에 육수를 부어 내오는 물 막국수의 묘미는 살얼음이 섞여있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서 찾을 수 있다. 채 썬 오이와 배 그리고 삶은 계란 등 단출한 고명을 얹고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 내오는데, 새콤한 국물과 어우러진 담백한 메밀면은

한여름 더위를 잊도록 만드는 특효약이다. 비빔 막국수는 메밀면 위에 똑같은 고명을 얹고 특제 비빔 양념장을 두르고 참깨를 뿌릴 때 김가루가 추가된다. 찬으로 나오는 백김치는 바로 이 비빔 막국수와 궁합이 좋다. 막국수에 곁들일 먹거리로는 돼지고기 편육이 좋다. 막국수를 기다리면서 먼저 나온 편육을 백김치에 싸서 새우젓에 찍어 먹는 맛이 일품이다.

☎ 막국수 8천 원, 편육 1만7천 원
 ◎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길 26 강계봉진 막국수
 ☎ 031-882-8300



이제는 콘택트 대신 언택트다 뉴노멀 시대의 언택트 마케팅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접촉(Contact)을 통해 이뤄졌던 삶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약을 거치면서 이 시대는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언택트(Untact)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혼란 속에서도 발달된 통신망과 모바일을 매개로 삼은 마케팅은 오히려 매출 증가를 가져왔고, 신제품 발표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자동차 판매와 아파트 분양 상담을 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글 _ 윤선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달라진 일상, 직장인들의 점심 풍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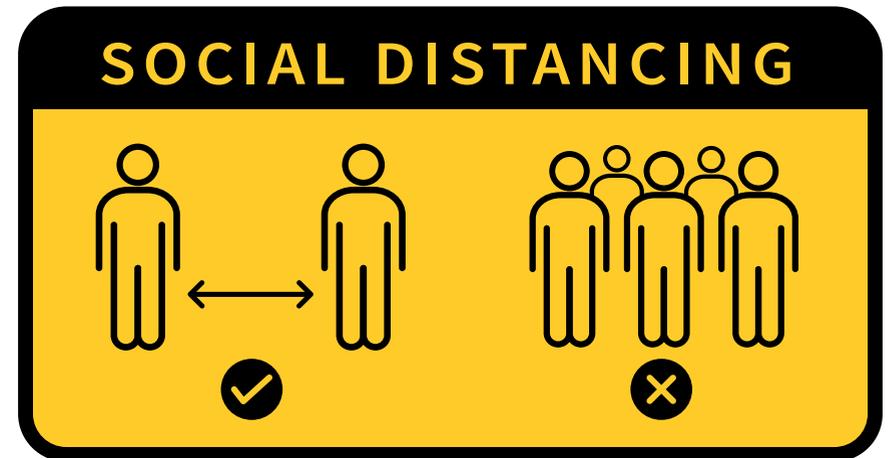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접촉(Contact)으로부터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밑바닥부터 흔들어놓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출근한 사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회의는 화상 회의로 대체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속도 역시 180도 달라졌다. 구내식당에서는 마주 앉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바라보거나 띄엄띄엄 앉아 식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커피 한 잔 들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풍경도 보기 어려워졌다. 회사(會社)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풀이하자면 '모이는 단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다. 재택근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서별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 방식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다. 재택근무는 1969년 미국 특허청 소속 과학자 앨런 키론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도미니틱스(Dominetics)'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언급되기 시작한 근무 형태다. 재택근무는 1976년에 등장한 '텔레커뮤팅(Telecommuting, 원격통근)'과 함께 꾸준히 그 장점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재택근무의 능력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를 새로운 노동문화로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재택근무에 대한 공론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경험한 이들 10명 중 8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넷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향후에도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 재택근무 경험자의 83.7%, 비경험자의 78.7%가 '그렇다'고 답한 것.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재택근무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화상 회의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세

그런데 이런 재택근무는 단지 노동방식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재택근무라는 언택트 상황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급성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화상 회의 플랫폼의 급부상이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세계적인 화상 회의 앱인 '줌(Zoom 클라우드 미팅)'은

병원, 약국 검색 앱인 '굿닥'과 함께 2월 대비 사용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앱으로 집계됐다. 2월에 18만 명이던 사용자 수가 3월에는 무려 187만 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방식의 회의가 어렵던 기업들은 100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줌을 활용해 화상 회의를 했고, 각급 학교는 물론 학원들 또한 이 앱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다른 화상 회의 플랫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구글 미트'는 지난 1월 대비 화상 회의 서비스 이용량이 25배나 늘었다고 밝힌 바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기반 협업 솔루션인 '팀즈'를 통한 화상 회의 역시 이용률이 1,000% 증가했다. 네이버가 만든 업무용 협업 유틸리티 '라인웍스'를 도입한 기업의 수 역시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화상 회의 부문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고 한다.

화상 회의와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웹캠이나 태블릿, 노트북, PC 관련 산업들도 급성장했다. 특히 웹캠의 판매량은 지난 2월과 3월 사이의 판매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87%나 늘었다.

재조명되고 있는 비대면 산업들

언택트 시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비 문화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앱 등의 비대면 산업을 순식간에 급성장시켰다. 직접 매장에 찾아가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던 소비 패턴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으로 검색해 선택하고 집으로 배달시키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대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날 주문해 그날 받는 당일 배송이나 저녁에 주문하면 이튿날 아침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은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였지만 여전히 손수 물건을 고르는 소비 방식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비대면 소비에 대한 요구가 언택트 시대를 앞당겼고 온라인 소비는 소비자들에게 일상이 되고 있다.

비대면 소비와 함께 급성장한 또 다른 분야는 신용카드 업체다. 집에서 경제활동을 구가하는 이른바 홈코노미(Home + Economy)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카드 결제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 말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무려 2조7611억 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2월 전체 온라인 카드 승인액도 9조24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를 훌쩍 뛰어넘었다.

사람들은 이제 각자 집에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 홈 트레이닝 시장의 급성장은 운동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트레이닝 웨어 업체는 이러한 변화에 맞는 광고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집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소구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것. 반조리 식품 혹은 간편식 제조업체도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구매를 꺼려했던 고가의 커피머신이나 와플 기계 등의 제품들 역시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한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코로나19는 산업의 지형도마저 바꿔놓고 있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인 극장과 OTT업체(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간의 희비쌍곡선이다. 영화관이나 공연을 하는 극장들은 뒷서리를 맞았지만 넷플릭스, 왓챠 같은 OTT업체들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극





장 대신 OTT를 통해 집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영화는 극장에서 감상해야 한다는 공식이 무너지고 말았다. OTT업계의 선두 주자인 넷플릭스의 올해 1분기 글로벌 가입자 수는 1577만 명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

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한국이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처럼 전 세계 각국의 로컬 제작자들과 손잡고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연장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머무른 반면, 이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온라인 공연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사례도 있다.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더 라이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미 SM엔터테인먼트가 '비온드 라이브'로 시도했던 것을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정점에 올려놨다고 평가되는 '방방콘'은 75만 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하면서 비대면 공연의 신기원을 만들었다. 티켓 판매로만 2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이 온라인 공연은 향후 K팝이 나갈 새로운 한류의 길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있던 언택트 시대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택트 문화는 이미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상으로 다가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키오스크다. 과거에는 영화 티켓을 창구에서 구매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현재는 키오스크를 통해 발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아예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디지털 티켓을 구매하고 그것을 영화관 입구에서 보여주는 방식의 영화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가 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소비 패턴은 유효하다. 극장에 여러 대 놓여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식당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 역시 진작에 도입됐다. 더 나아가 주인 없이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스터디 카페 그리고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 카페도 생겨났다. 디지털과 AI 기술 등이 접목된 언택트 문화가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던 언택트 마케팅에 가속도를 붙였다.

본격화된 언택트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는 새로운 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다. 상품을 출시하거나 소개하기 위해 열리던 쇼 케이스나 각종 발표회 같은

행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도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 구매와 부동산 상담까지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은 지금껏 그 대상이라 여겨지지 않던 의외의 분야까지 끌어안고 있다. 농기계 제조사들이 공격적인 비대면 마케팅으로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끌어낸 사례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시작된 비대면 시대는 우리에게 예정된 미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비대면 소비와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 + Z세대)는 이미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예정된 미래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과 바다, 계곡이 한 곳에 여름여름한 Cool 여행지

한 곳에 머무르며 산과 계곡, 바다까지 온갖 시원한 풍경과 체험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름 여행의 베스트 초이스!
시원한 동굴과 해양 케이블카에서 남해 전망 포인트의 끝판왕까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 속 더위까지 몰아내는 쿨한 여행지들을 찾아 떠난다.
글_ 류재민(여행작가)



동굴 탐험과 바다 놀이터가 기다리는 낙원
강원도 삼척

많은 사람들이 매년 여름 휴가지 장소로 동해안을 고집하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를 한 장소에서 섭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강원도이기 때문. 그중에서도 강원도 남단의 고장 삼척은 유난히 푸른 빛깔을 머금은 바다 뒤로 험준한 봉우리들을 병풍처럼 세워둔 수려한 고장이다. 대자연이 신묘한 술수로 일구어 놓은 천연의 테마파크 강원도 삼척으로 떠나볼까?

강원도 최남단 바닷가 고장인 삼척은 송강 정철이 극찬한 관동팔경 중 하나인 죽서루를 품고 있으며, 바다에는 해양케이블카와 장호어촌체험마을 등 매력적인 풍경과 진기한 체험이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백두대간과 접하고 있는 고봉준령 바로 아래의 대이리 동굴지대에는 에어컨보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색 피서지 환선굴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에 이처럼 이국적이면서도 선택의 폭이 넓은 여행지는 또 없을 것이다.



장호항의 일출



대이리 동굴지대의 환선굴



용화해변의 맑고 투명한 바다



강원도

삼척

핫 플레이스 in 삼척

대이리 환선굴

삼척 신기면 대이리의 협곡지대에 형성된 동굴들은 한 여름 이색 피서지로 인기 만점이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줄줄 흐르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동굴 내부의 온도는 섭씨 11도를 유지해서 시원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동굴 중 일반인에게 개방된 동굴은 환선굴과 대금굴 두 곳이지만 동굴 내부가 좁고 예약이 어려운 대금굴보다는 환선굴을 추천한다.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했던 모리아 광산을 연상시키는 압도적인 규모가 인상적이다.

◆ 강원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바다 놀이터 장호항

여름날의 바다를 만끽하기에 물놀이만큼 좋은 것은 없다. 삼척 시내를 기준으로 약 20km 남쪽에 위치한 장호항은 유난히 투명한 바다와 항구 주변에 발달한 해식애(바닷가에 형성된 기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매년 피서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소다. 장호항에 위치하는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는 투명 카누와 스노클링 등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다 위를 등실 떠가는 이색 체험을 놓치지 말자.

◆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31



짜릿한 해상 케이블카

장호리와 용화리 사이에는 몇 년 전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케이블카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 초 누적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한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바닥이 투명한 캐빈에 탑승한 채 20~25미터 높이에 매달려 800여 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왕복하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용화해변 그리고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강원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붉은 황혼을 닮은 아름다운 서쪽 바다

충청남도 보령

보령은 지역에서 가장 이름 난 여름 휴가지 대천 해변과 서해안 최초로 개발된 해수욕장 무창포 해변을 품고 있는 고장이다. 때문에 매년 여름 충남은 물론 가까운 전북과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대천과 무창포 그리고 독산해변 등 보령의 주요 해수욕장들은 대부분 발이 푹푹 빠지는 빨발이 아니라 모래로 이루어진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 동죽이나 맛조개를 캐고 밤에는 해루질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최고의 놀이터가 아닐 수 없다.

서해의 바닷가에 위치해 있지만 내륙 쪽으로는 성주산을 중심으로 성주계곡, 심연동계곡, 화장골 등의 계곡과 성주산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등도 있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취향에 맞게 여행 플랜을 짤 수 있어 좋다. 잔잔한 서쪽 바다에서 울여름을 차분하게 만끽하고 싶다면 호서지방의 남쪽 연안에 위치한 보령으로 떠나보자.



개화예술공원



죽도 상화원



성주산 심연동계곡 © 보령시청



핫 플레이스 in 보령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올해 서해안 최대 규모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개최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대천해수욕장에는 그밖에도 즐길 거리 많다. 대천해변에 위치하는 스카이바이크는 국내 최초의 바다 위 레일바이크로 페달을 직접 밟아 2.3km 구간의 코스를 왕복하는 놀이기구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한낮에는 스카이바이크에 비치된 양산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 썰물이 밀려드는 만조 때는 레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물에 잠기면서 바다 위를 떠가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10길 79



죽도 상화원

대나무가 많았다 하여 대섬 혹은 죽도(竹島)라고 불렀던 섬에 만들어진 정원. 상화원(尙和園)이라 이름 붙인 섬의 한가운데에는 홍성, 순천, 서산 등 충남과 전남에 있던 고택들을 이간하고 음성의 동헌과 객사를 복원해 한옥마을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연못과 함께 테마별 정원도 조성했다. 상화원을 가장 쉽게 둘러보는 방법은 섬 주변을 따라 개설된 길이 2km의 탐방로를 따라 산책하는 것. 탐방로에는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한낮의 띄약별을 피할 수 있어 좋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남포방조제로 408-52



성주산의 계곡들

보령시는 서해안의 유명한 여름 휴가지인 까닭에 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성주산과 만수산은 해발 500~600m 내외로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성주계곡을 비롯해 심연계곡, 화장골계곡까지 골골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들을 여럿 거느리고 있어 보령 사람들의 여름 피서지로 유명하다. 세 곳의 계곡 모두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지긋지긋한 더위를 깨끗이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65-329(성주계곡)



에메랄드빛 한려수도의 보석 경상남도 남해

사천 방면에서 창선삼천포대교를 통해 남해군으로 진입하면 지족면에 이르러 '죽방렴'이라는 독특한 멸치잡이 도구가 눈에 들어온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V자 형태의 구조물이 바로 남해군 지족해협을 죽방렴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녘 바다의 아름다운 섬나라 남해군에는 이처럼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독특한 풍경이 많은 천혜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순천, 하동,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보석 같은 고장들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까닭에 아직도 남해군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명승지 중에 유일하게 산에 해당하는 금산과 보리암을 비롯해 은빛 모래가 반짝이는 상주 해변 그리고 남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까지. 남해의 속살은 지금 이 계절에 가장 빛나는 모습을 드러낸다.



핫 플레이스 in 남해

까마득한 절벽 위 암자 보리암

해발 681m의 금산 정상 부근에 자리하는 보리암은 3년간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일출과 금산38경 때문에 더욱 신비감을 더한다. 주차장에서 덜컹대는 순환 버스를 타고 아찔한 산길을 10여 분 더 이동한 뒤 내려서 다시 15분 가량 걸어 올라야 보리암에 도착하게 된다. 암자에 도착해 마주하게 되는 풍광은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까마득한 절벽 위에 올라앉은 보리암과 쪽빛 남해 풍경은 우리나라 3대 기도처의 영엄함을 웅변하는 듯하다.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호수 같은 바다 상주은모래비치

보리암에서 정면 아래쪽을 바라보면 유난히 새하얀 해변 모습이 펼쳐진다. 상주해수욕장은 주변 풍광이 아름답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 해변으로 모래가 곱고 하얗기 때문에 '은모래비치'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상주은모래비치의 해안선은 마치 장독의 안쪽처럼 깊은 포물선을 그리며 육지로 깊이 파고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니 물결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수온도 높아 물놀이하기에 아주 좋다.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0-3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수백 년 동안 거센 바람과 파도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왔던 물건방조어부림에서 출발해 보물섬 전망대 스카이워크와 향도전망대를 거쳐 미조면 향도마을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해안 드라이브 코스다. 편도로 16.5km에 달하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면 보석처럼 곱고 오묘한 푸른 빛깔을 머금은 남해군의 아름다운 바다가 차창 밖으로 펼쳐진다. 지난해 완공된 보물섬 전망 스카이워크에도 반드시 들려보도록 하자.

📍 물건항 → 보물섬 전망 스카이워크 → 향도전망대 → 향도마을



이수의 PICK

2030 세대의 새로운 문화
밀레니얼은 등산도
힙하게 즐겨요!

고가의 등산복을 착용하고 전문 산악인을 방불케 하는 장비를 갖춘 뒤 산으로 가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타이츠(레깅스)와 반바지를 입고 반다나를 머리에 두른 산린이들이 패셔너블하며 힙한 등산 문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 인증샷 촬영도 중요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하는 등 자연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밀레니얼의 등산 문화를 만나볼까? 글_ 차선우(자유기고개) 사진_ 강대국, 박소연



밀레니얼 세대의 동참으로 인해 등산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아재들의 취미로 여겨졌던 등산이라는 액티비티에 2030을 중심으로 하는 밀레니얼 '산린이(등산+어린이)'들이 뛰어들면서 산행 길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복장이다. 전문 산악인이 아닐까 착각하게 만드는 고가의 기능성 의류를 즐겨 입던 과거의 등산문화와는 달리 2030은 레깅스 혹은 가벼운 반바지 차림으로 산을 타고 있다.

어느 모임이나 엇비슷했던 산악 동호회 위주의 등산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SNS를 통해 소수의 인원이 즉석에서 모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산을 찾아가 하면, '포토그래퍼와 함께하는 등산', '등산과 캠핑을 함께 즐기는 백패커' 등 저마다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젊은 산꾼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는 '도시락 예쁘게 싸기' 챌린지라도 벌이듯 그날 먹은 도시락 사진들로 눈을 황홀하게 만들기도 한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워라밸도 찾아볼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일상의 스트레스를 야외 활동으로 해소하고자 등산을 시작하는 2030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산, 청계산, 관악산, 용마산 그리고 아차산 등 서울과 경기도 근교의 유명한 산행코스에는 젊은 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각 산의 정상에 세워둔 표지석 주변은 사람들로 붐비기 마련인데, 최근 이 표지석 앞에 인증샷을 찍으려는 2030의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라고 한다. 인왕산처럼 대학가와 인접한 산의 경우 평일에도 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젊은 층이 평상복 차림으로 등산하는 모습은 요즘 아주 흔한 풍경이 됐다.

2030의 참여로 인한 등산인구의 증가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국내 대표적인 산행 플랫폼인 BAC(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의 4월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중에 절반 이

상이 2030이라고 한다. 또한 BAC에 등록된 산행 인증 수 역시 30% 가량 늘어난 5만여 건을 기록했다. 국립공원 방문자 수도 상승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북한산, 치악산, 계룡산을 방문한 탐방객은 전년 대비 34.3%~47.3%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북한산의 경우 젊은 등산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interview

맨눈으로 밤하늘에 은하수를 본 적 있으세요?

사진 찍는 등산 매니아 강대국



올해로 등산을 시작한 지 3년 된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처음 등산 갔을 때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그때부터 등산에 빠져들었죠. 산에서 마시는 공기는 향 자체가 달라요. 사진 촬영도 등산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함께 등산 다니던 형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도 카메라를 구입해 촬영을 시작했죠. 요즘에는 등산 필수품이 됐어요. 아무리 스마트폰 사진이 잘 나와도 카메라와는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 5월에 지리산 종주를 하던 중 밤하늘에 은하수를 보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들과 봉우리를 뜻하는 '봉'이라는 이름의 등산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25세에서 35세 사이가 많습니다. 모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매주 한 번은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 사이 등산을 하는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가까운 북한산이나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들 중에 2030이 절반 이상 증가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산 정상에는 표지석이 있는데 인증샷을 찍으려는 줄이 엄청 길어졌거든요.



요즘 산행 길에서는 레깅스와 반다나를 착용한 2030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산에서도 레깅스와 롱 삭스 즐겨 입는 2030

등산이라는 아웃도어 신(scene)에 2030이 뛰어들면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단연 패션이다. “나 등산 가요~”라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하던 기성 세대의 ‘등산복’ 문화를 과감하게 벗어던진 그들은 레깅스와 긴 양말 또는 기능성 원단으로 만든 반팔이나 반바지에 무릎까지 오는 니 삭스(knee socks)를 매치해 입는 등 아웃도어 패션에 대한 자

신들만의 주관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반다나라고 부르는 스카프를 머리에 리본처럼 두른 여성과 반바지와 레깅스를 레이어드 해서 입은 남성의 모습은 달라진 산행 패션 트렌드를 상징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등산을 시작한 직장인 박소연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 여성들은 레깅스를 선호하는 것 같고 긴 양말은 성별 구분 없이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신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말에 서울 인근의 북한산이나 청계산 등지에 오르면 2030 여성 등산객들 중 열에 아홉은 레깅스를 입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트렌드 덕에 아웃도어 의류와 홈 트레이닝 전문 브랜드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패션 업계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후폭풍에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의외다. 특히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레깅스 전문 브랜드들은 동기간 대비 1.5배에서 2배까지 성장하는 사례도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산행의 묘미 도시락, 사갈까? 싸갈까!

밀레니얼 세대의 등산 문화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도시락이다. 간편하게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김밥을 구입해 가져가기도 하지만 직접 도시락을 싸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다 보니 도시락 뚜껑을 열면 고기와 샐러드, 김밥, 계란말이, 두부김치, 각종 과일까지, 먹거리의 종류도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인증샷의 면면을 살펴보면 등산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절로 산에 가고



등산 도시락 문화는 예쁜 인증샷을 남기려는 목적 외에 일회용품 사용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일조하고 있다



싶을 만큼 식욕이 도는 먹방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등산 크루(crew)에 합류하게 되면 그날은 진수성찬을 대접 받는 운수 좋은 날. 오죽하면 집에서는 대충 끼니를 때우다가 산에 오면 몸보신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 미리 준비한 식재료로 2~3시간씩 정성스레 만들어 가지고 온 도시락은 그냥 먹기 아까울 정도로 맛갈스러워 보인다.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다뤄온 세대답게 SNS를 이용한 소통에 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예쁘고 멋지게 찍은 인증샷을 올리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다. 평소 운동을 즐겨했던 사람이라면 흔히 레깅스라 부르는 타이츠를 입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등산용 모자 대신 스냅백을 쓰거나 반다나를 머리에 둘러 포인트

산행 길에서 쓰레기 되가져오는 산린이들

밀레니얼의 등산 도시락 문화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에도 일조하고 있다. 스티로폼 용기나 종이컵, 나무 젓가락 대신 각자 개인 도시락과 수저를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가져오더라도 반드시 되가져가는 것이다. 이들은 SNS를 통해 ‘등산 도시락 만드는 법’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 텀블러나 물병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로 인해 산행 코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신들만의 등산 문화를 개척해 가고 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통해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산린이들

를 주기도 한다. 실용성과 기능성도 좋지만 패션에 민감한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한 자신들을 가리켜 '산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산린이'란 '산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이제 막 산행을 시작한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이처럼 산린이들의

아웃도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세태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은 역시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의 등산 관련 피드에 자주 등장하는 해시태그에서도 '산린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서 '등산스타그램'이나 '산린이' 같은 해시태그는 이제 자신이 힙스터임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interview

등산은 제 삶의 워라밸이죠

'산만소모' 운영자 박소연



저는 2030을 위한 등산 모임인 '산만소모(산을 만나는 소규모 등산 모임)'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 2명과 결성한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회원 수가 40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회원 수는 많지만 등산을 갈 때는 보통 5~8명 정도의 적은 인원이 모여 산행을 해요. 제가 직접 포토샵으로 로고도 만들고 작은 깃발도 만들었지만 무언가 강제하는 규칙은 없어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등산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작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했으니 이제 꼭 1년 됐네요. 처음에는 그냥 산이 좋아 시작했지만 지금은 등산이 제 삶의 워라벨을 조절해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산행을 다녀올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그날의 산행 경험과 감상을 에세이처럼 적는 버릇도 생겼어요.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클린 산행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클린 산행을 하는 날에는 생분해성 비닐봉지를 각자 하나씩 손에 들고 등산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되가져오곤 해요.

Ombudsman

귀담아 듣는 독자엽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우 및 가족들의 많은엽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엽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을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보기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보에서는 사보 제작에 힘쓰는 '14인의 이수사보 기자' 코너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다시 한 번 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사보 제작 과정이 궁금했던 터라 더욱 집중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숨겨진 사연들을 들으니 그간의 노고와 기쁨도 느껴져 더군요.

이동건 차장(이수화학 총무팀 총무2파트)



반가운 우리 회사 사람들

팀업뎀뎀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 이야기기 실려 눈여겨보았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지만 국내사업팀은 외근이 잦아서 팀원들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모두 한자리에서 만난 것 같아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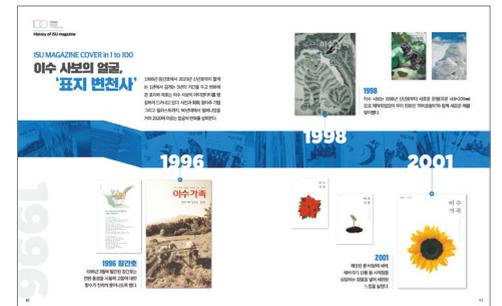
남소정 대리(이수엔지니어스 연구기획팀)



키워드로 지난 10년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이수의 픽 2010년대 컬러 키워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특정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니 재미도 있고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유행과 이슈의 변화들을 연도별로 살펴봐 보니 2020년대는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됩니다.

배민지 님(이수페타시스 적층1 배상호 기선 차녀)



100번의 표지 변천사가 흥미로웠어요~

이수사보 표지 변천사를 보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간호부터 100호까지 발간된 세월을 따져보니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던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보 제작에 힘써주시기 바랄게요.

양다겸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실험2파트 양정민 선임기자 차녀)

이수 뇌섹남녀를 위한 두뇌 트레이닝 QUIZ

※ 사보 <ISU>는 여러분의 창의력을 키워줄 퀴즈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ev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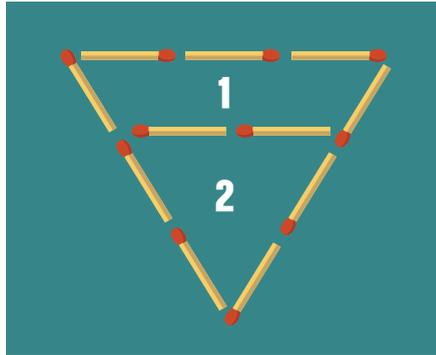
단면이 정사각형인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삼각형 8개를 만들어 보세요.



* 한 개의 퀴즈만 맞혀도 선물을 드립니다. 모두 함께 도전해보세요!

Level 2

아래 성냥개비로 만든 역삼각형에서 1번과 2번 중 어느 쪽 면적이 더 넓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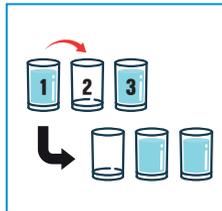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0년 봄호 당첨자 (※가나다순)

- 남소정 대리(이수앱지스 연구기획팀)
- 배민지 님(이수페타시스 적층1 배쌍호 기선 자녀)
- 양다경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실험2파트 양정민 선임기장 자녀)
- 엄지연 대리((주)이수 경영지원팀)
- 이동건 차장(이수화학 총무팀 총무2파트)
- 주재민 님(이수페타시스 생산3파트 도금1 주상철 기선 자녀)

* 봄호 정답



1번 컵의 물을 2번에 붓는다

8	3	4
1	5	9
6	7	2

빈칸의 숫자는 5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기유희 원고 마감은 9월 20일입니다.

